

광주광역시 양림동 지역의 공간변화 양상 연구

송하인* · 홍기대**

A Study on the Spatial Change in Yangnim-dong, Gwangju

Hain Song* · Kidae Hong**

요약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파편화된 이해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 공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림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근대의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양림동 지역은 조선시대, 근대, 현대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조상들의 삶이 ‘변증법’적으로 만들어졌던 동적인 공간이다. 셋째, 양림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복원시키기, 역사지리를 통한 장소감 획득, 지역지리교재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고착화된 공간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적 시도에 그 의의를 둔다.
주요어 : 공간 변화, 양림동 지역, 지역지리교재 개발

Abstract : This study looked at a spac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solve the fragmented understanding of the space in Yangnim-dong, Gwangju.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prior research on Yangnim-dong was mostly conducted by modern missionaries. Second, the Yangnim-dong area is a dynamic space that is created and changed “modified” by human life during the Joseon Dynasty, modern times, and today. Third, for the development of Yangnim-dong area,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voices of various people of various times, acquire a sense of place through historical geography, and develop local geography textbooks toge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one methodical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fixed spatial recognition.

Key Words : Space change, Yangnim-dong area, Development of local geographic textbooks

I. 서론

하나의 공간은 결코 고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 동시대에 배치된 다양한 사회적 공간들은 상호충돌하고 포개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게 되고, 하나의 사회적 공간 또는 구성 주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다중적 의미를 보여주게 된다(한정훈, 2017). 따라서 공간이란 본래의 자연, 인위적으로 만든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양혜진 · 신주철, 2015). 공간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생성되고 변

화되는 동적인 상태이다(Lefebvre, 1974; 이화식, 2016). 이처럼 공간은 그곳에 거주한 다양한 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이다(Lefebvre, 1974). 그러나 현재의 일부 공간은 자본주의가 잠식하여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은 주류계층과 경제적 이해에 의해 소외(alienation)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도시의 공간적 소외는 현실 공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소외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의 추상화, 즉 추상공간으로 인한 의식의 소외를 가져온다(최병두, 2018). 그 대표적인 공간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양림동 지역이다.

*광주진남초등학교 교사(Teacher, Jinnam Elementary School in Gwangju, songhain@hanmail.net)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cdhong@gnue.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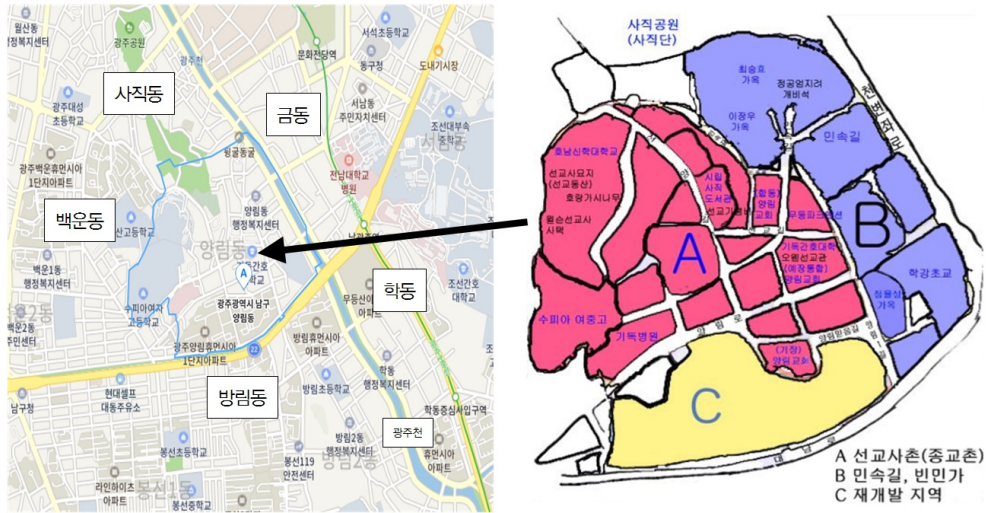


그림 1. 양림동의 위치(좌)와 공간 구조도(우)

* 네이버지도 재구성(좌); 이정훈(2008: 10)을 좌측 지도의 해당 지역에 화살표 방향 표시(우).

광주광역시 동쪽에 무등산(1187m)과 북서쪽에 어등산(338m)이 위치한다. 담양에서 발원하는 영산강과 장성에서 발원하는 황룡강이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흐르면서 다양한 지리적 요충지를 만들어 낸다(국토지리정보원, 2015). 따라서 광주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풍부한 물과 평야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조정규, 2002). 광주는 북동쪽이 높은 지형이라면 남서쪽으로 평탄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나주, 함평과의 경계지역은 넓은 평야를 만들어 낸다. 무등산에서 발원하는 광주천은 광주의 도심을 흐르는 사행천(蛇行川)으로 많은 퇴적지를 만들어 내어 광주의 도시화과정은 광주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박익준, 2002; 양해근, 2004).

광주광역시 양림동(楊林洞)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사면에 자리 잡은 전통 주거지역이다(김병수 등, 2008). 양림동은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곧장 흐르는 광주천의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주천을 경계로 학동과 금동으로 구분된다. 광주천을 건너면 광주도심지역과 연결된다(이정훈, 2008:7).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이 터를 잡고 여학교와 근대식 병원을 개설하였다. 광주천은 홍수가 생기면 범람하기 때문에 주위에 제방을 쌓고 버드나무를 주로 심었다. 양림동이라는 이름은 버드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마을이라 해서 양촌과 유림을 합한 것이다(박선희, 1994).

무등산에서 발원한 광주천은 여러 실개천의 물줄기가 사행천(蛇行川)을 이루며 흘러내리다 너른 유역을 만든 곳이 양림동 지역이다. 퇴적지 양쪽은 빨래터, 시장, 놀이터 등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었으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적으로 임시주거를 만들어 거처하는 갯생의 터였다. 광주천은 물이 깊지 않아서 사람들이 천렵을 하기도 하고 큰 돌을 놓아 쉽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도 하였다(천득염, 2009). 따라서 광주천과 가까운 그림 1(우)의 지역은 지금도 여름의 집중호우 시기에는 항상 침수가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의 양림동인 그림 1(우)의 A, B, C와 사직산, 성거산이 있는 현재의 사직동, 조선시대까지 광주읍성이 있던 현재의 금동, 충장동, 내남로를 경계로 양림동과 마주 보고 있는 현재의 방림동, 학동 지역이다.

광주광역시의 양림동은 근대건축물과 다양한 현대적 카페(cafe)가 혼재한 공간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 근대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꼭 둘러보는 곳이다. 이에 따라 양림동에 대한 연구물은 광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양림동 연구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대부분 근대 선교사들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양림동에 남아있는 근대의 경관(landscape)을 이용하여 관광,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림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경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남장로교

와 관련된 근대 기독교의 전파와 선교사 연구(김종철, 2008; 송현숙, 2011)가 있다. 김종철(2008)은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유진벨이 전라남도 목포와 광주에서 개신교를 전하기 위해 활동한 과정(양림교회, 송일학교, 수피아학교, 오웬의 광주기독병원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근대 건축물 연구(김병수 등, 2008; 박중호 등, 2008; 천득염, 2009)가 있다. 박중호 등(2008)은 1900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서양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양림동에 지어진 22곳의 선교, 교육, 의료 분야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평면, 입면, 재료,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양림동 근대건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현대의 양림동 도시관광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구(김경환, 2011; 나은정, 2014; 장세영, 2015; 홍옥범, 2015; 박정은·이효원, 2016; 정유리 등, 2017; 김형민·정봉현, 2018)가 있다. 정유리 등(2017)은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림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개발영향요인, 관광개발지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개발이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양림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근대의 선교사들이 이루어놓은 경관(landscape)을 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과 관련된다. 이로 인해 양림동 지역에 대한 공간적 배치의 이면에 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림동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근대라는 한 시대로 국한시켜 제시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역사적 시각으로 한 공간을 바라볼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 가시적인 요소를 한 꺼풀 걷어내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유영화, 2016). 양림동은 단순히 근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아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양림동이라는 공간을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시대에 맞추어 공간 인식의 추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공간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리적

인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결과물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대역사에 한정되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림동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는 양림동을 사회적 공간으로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시간의 기억과 결합하면서 지리적 관점으로 공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림동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른 문화적 공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림동 공간의 역사를 지리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양림동 지역의 공간변화 양상

1. 조선시대: 이데올로기의 공간-양반과 상민의 공존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이 달랐다. 양반들은 그들의 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도시경관도 성리학적 이념에 맞추어 배치했다. 예를 들면 도시 내에 읍성을 구획화하고 읍성 안의 주요 건물과 도로 등의 공간조성 계획을 유기적 위계관계에 따라 배치하였다(이재희·안정근, 2013; 황영산·전경숙, 2015).

조선시대 광주 또한 읍성이 도심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그 읍성을 중심으로 큰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읍성은 북문(공북문), 남문(진남문), 동문(서원문), 서문(광리문)이 있었고 서울을 향하는 북문이 가장 큰 길이었다. 북문 앞에는 공북루가 있었다. 읍성 안은 주로 양반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내아, 객사, 각종 창고 등이 있었다(조정규, 2013).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1872년 지방지도와 읍성구조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광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평평한 평야지역의 중앙에 읍성을 설치하였다. 읍성은 조선시대 관리들을 중심으로 행정, 경제, 정치 등이 이루어졌던 공간이다. 읍성 주위에는 양반들의 민가가 있었으며 그 민가 앞에는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이 존재하였다(이재희·안정근, 2013; 정경운, 2016). 읍성과 광주천 사이에는 활발한 삶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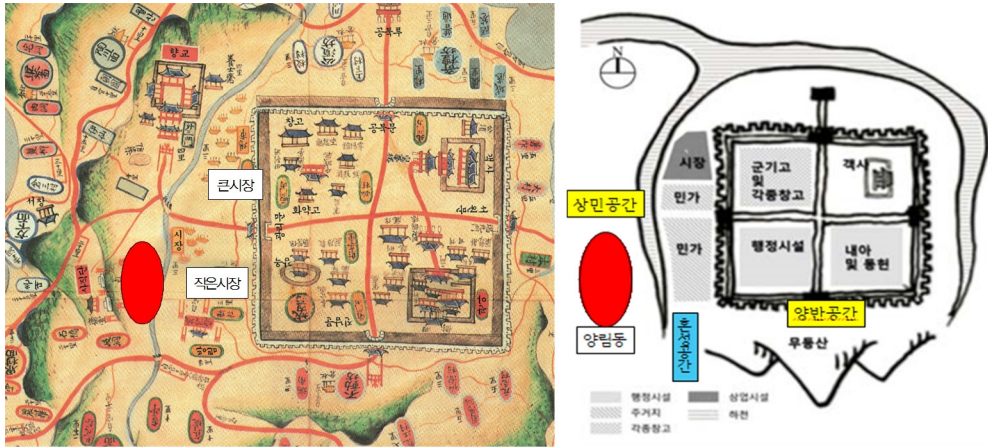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광주지도」(좌)와 광주읍성 구조도(우)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광주지도」에 표시(좌); 이재희·안정근(2013:10) 재구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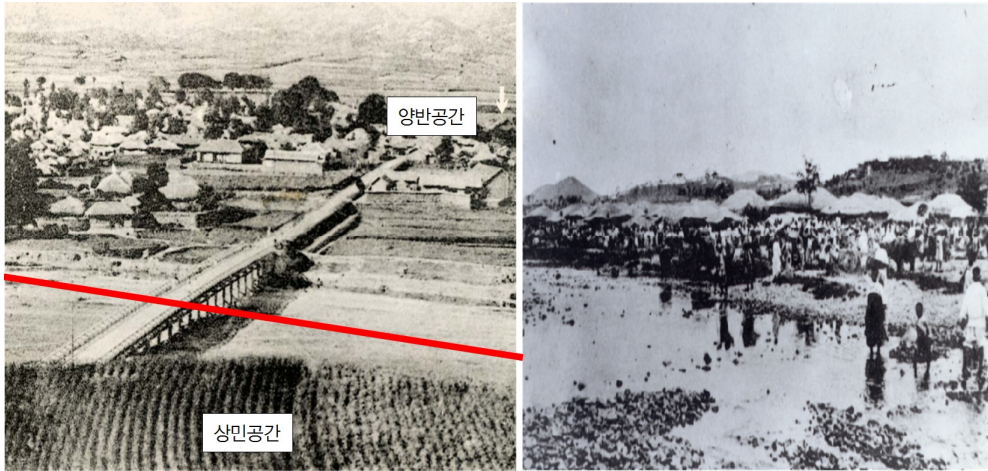


그림 3. 1900년대 초 북문(좌)과 광주천 작은 시장 주변(우) 모습

출처 :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

* 빨간색 줄은 양반공간과 상민공간을 나누어 임의로 표시(좌).

지역은 지금의 금동, 충장동으로 현대까지 광주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양림동은 읍성의 서문(광리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광주천이라는 자연환경 때문에 양림동 사람들은 읍성 주위의 장소로 출입이 쉽지는 않았다. 광주천은 이처럼 양반과 서민의 공간을 분리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광주천은 사행천으로 양림동 주위에 퇴적지를 만들어 냈다. 이런 퇴적지는 관계용수의 수원지, 방앗간의 동력원, 놀이터나 휴양지, 오일장이 서는 곳으로 역할을 하면서 토착민들에게 대대로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었다(정

경은, 2016). 양림동은 침수가 잦고 본격적으로 광주천 정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움막형태의 가옥을 짓고 살았다. 광주천변 부지에 움막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홍수가 들면 집을 잃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천득염, 2009).

그림 3은 1900년대 초 광주의 모습이다. 그림 3(좌)은 현재 광주공원에서 북문 밖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고 그림 3(우)은 광주천 인근(작은 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사진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지만 읍성과 가까



그림 4. 광주향교(좌)와 사직단(우)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

출처 : 네이버블로그, “사람 사는 광주”.

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광주천 너머 읍성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구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양림동 지역의 서민들이 읍성과 가까운 양반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골짜기, 성문 등과 같은 통로를 거친다. 여기에서 통로란 한 장소와 다른 장소, 또는 한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곳을 말한다(최진성, 2019). 그 연결된 장소의 접이지대 근처에는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이 들어선다.¹⁾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배계층에게 있어 지방의 각 도시들은 예의 실천의 장(場)으로서 각종 신령계 제사 지내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했다. 여기에도 예법이 중시되어 주자의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에 따라 도성의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아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 아래 종교경관들이 배치되었다(최진성, 2019). 이에 따라 광주읍성 밖에 향교(문묘)(左), 사직단(右), 여제단(左), 성황단(右) 등 종교경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객사나 동헌 또는 관사와 같은 중심요소들을 포함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읍성 밖 경계부에 종교경관들이 유교적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됨으로써 내부의 중심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최진성, 2019). 대부분의 종교경관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인 읍성을 바라보는 쪽으로 구성되었다.

광주향교는 1398년(태조 7년)에 유명한 유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의 교육과 백성의 교화를 위하여 읍성의 좌(左)측에 해당하는 지금의 무등산 쪽에 창건되었으나, 1488년(성종 19년)에 홍수로 현감 권수평이 현재 위치인 양림동 근처 서동에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사직

단은 읍성의 우(右)측에 해당하는 현재의 사직산에 지어졌다(한예원, 2014). 사직단²⁾은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다. 사직단은 한말에 군사훈련장으로 이용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60년대 말 동물원을 만들면서 사직단을 헐었다가 199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박선희, 1994).

향교와 사직단은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었던 조선시대 광주를 상징하는 경관이다. 이곳에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계층들을 통제하였다. 그들의 이상이 들어 있는 종교경관은 읍성 주위의 비교적 높은 산³⁾에 입지한다(최진성, 2007). 읍성과 가까워서 왕래가 쉽고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양림동 근처의 사직산과 성거산이 된다. 그에 비해 양림동과 가장 가까운 양림산은 상대적으로 두 산보다는 아주 낮고 읍성과는 떨어져 있어 철저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근대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묻히던 곳으로 상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다(천득연, 2009). 따라서 이 지역은 양반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림 5는 종교경관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양림동 지역의 공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광주천 너머에 살았던 양림동 지역 사람들은 양반들의 공간(읍성과 읍성 주변)과 거리상, 심리적으로 차단되어 살았다. 읍성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광주천이라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차단되었다. 그들이 읍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를 건너야 했고, 혼성공간인 시장을 건너 서문을 통과한



그림 5. 1900년대 초 이전 양림동 주변의 종교경관과 공간구조의 현재 위치

* 네이버지도도를 재구성하여 현재 위치에 표시.

후에야 비로소 양반들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심리적으로 성기산에 있는 향교, 사직산에 있는 사직단에 의해 양반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의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가 되는 곳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가 된다. 그때의 작은 골짜기는 지금은 도로로 변해있다. 조선시대 양림동 지역은 광주천, 골짜기라는 지형에 의해 공간이 사회적이고도 실질적인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2. 근대 시대: 혼돈의 공간 - 선교사, 일본인, 자본가, 서민

조선시대 음성 주위의 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려면 나무가 많이 있어 땀값을 제공하거나 종교적 경관으로 신성시되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어야 한다. 광주 음성의 서편에 자리잡은 양림산은 음성에서 바라보면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으로 부랑자거나 아이들이 죽으면 버리고 돌을 쌓아 풍장을 지내던 어둡고 암울한 곳이었다(천득염, 2009).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땅값은 상대적으로 헐값에 거래되었을 것이다.

1884년 최초의 선교사 입국 이후 목포를 통해 광주로 들어온 미국남장로회 선교사들은 1904년 양림동에 정착

한다(나은정, 2014).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유교적 색채가 약한 곳이어야 한다.⁴⁾ 그리고 그들이 보살필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으면 선교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즉 유교적 색채가 강한 곳과 가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버림받은 공간이 전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된다. 그곳이 바로 양림산 근처의 양림동 지역이다.

1904년 12월 19일 유진벨은 오웬과 함께 광주로 이주하였다.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유진벨과 오웬가족, 변창연, 그리고 요리사들이 주민을 초청하여 4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광주지방 최초의 교회인 양림교회의 시작이다. 유진벨은 이곳에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의료활동, 그리고 교회 개척에 힘썼다(김종철, 2008). 유진벨을 시작으로 클레멘크 오웬, 서서평 등의 선교 및 의료봉사 활동으로 양림산은 호남지역 선교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광주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증원, 나환자를 위한 광주 나병원, 다양한 학교 등 근대적 건축물이 등장한다. 다음은 당시 생기기 시작한 근대적 건축물의 경관이다.

1910년대 양림동은 조선시대까지 천대받던 장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근대식 건물이 세워지면서 근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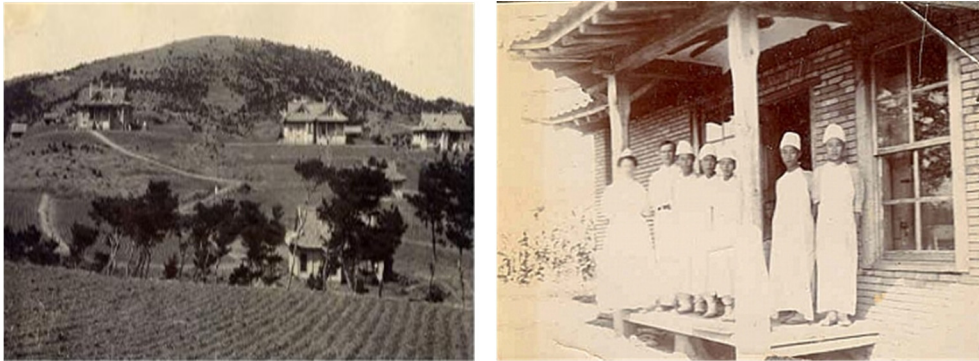


그림 6. 1900년대 초 양림동 모습(좌)과 제중원(우)

출처 :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



그림 7. 근대 양림동의 공간 구조의 현재 위치

* 화살표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네이비지도를 재구성하여 현재 위치에 표시.

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박종호 등, 2008). 이에 따라 조선시대 읍성 주위에 모여 있던 양반들의 집들도 광주천을 넘어 양림동 근처로 모이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양반들의 가옥은 이장우와 최승효의 집이다. 이들의 가옥은 양림산을 바라보는 사직산의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7의 지도를 보면 이장우와 최승효 가옥은 사직산의 기슭에 있으며 광주읍성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천보다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부잣집 가옥의 특징이다. 당시 1914년 광주의 갑부인 정낙교가 최승효 가옥 위쪽의 사직산 구릉에 양파정을 건립한다.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양파정은

동시대에 세워진 건물로서 구릉 지향의 장소응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높은 곳에서 일본인들이 차지한 읍성을 바라보는 형태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상징공간이었던 읍성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기고 유교 이데올로기가 응축된 사직산 기슭에 양반들이 고급한옥을 지은 이유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일종의 경관을 통한 시각적 또는 상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 당시 양반들의 몸부림일 수도 있다.

이장우 가옥은 집터 언덕 아래에서 굽이쳐 흐르던 광주천의 물길과 집 정면에 펼쳐진 무등산 봉우리들의 풍광이 어울려 한폭의 경관을 이루었다. 1899년 건립 당시

의 소유자는 정병호로 대문간, 곳간채, 행랑채로 배치된 상류 주택양식의 기와집이었다. 1965년 현 소유자 이장우에게 이전되었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89년 광주광역시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최승효 가옥은 독립운동가인 최상현의 집으로 대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에 다락을 설치하여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피신시키는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1920년대에 지은 매우 큰 규모의 전통가옥이다.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은 전통한옥의 형태에 일본식 가옥의 형태를 가미하였다(나은정, 2014). 1910년대 양림동 일대는 양림산을 근거로 서양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사직산을 중심으로 자본이 있는 양반들 위주로 고급한옥을 형성하였다. 양반들이 사직산을 근거로 모인 이유는 일제의 음성파괴와 관련이 깊다.

1896년 대한제국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나주에서 광주로 변화한다. 당시 목포를 개항하자 많은 일본인들이 나주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나선하, 2006). 또한 그들은 광주의 상권이 집중해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에 진출하였다(조정규, 2002). 이에 따라 음성은 철저히 파괴⁷⁾되고 그 자리에 일본의 자본가들이 들어오게 된다. 일본인들은 빠르게 음성 주위를 그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일본학교, 일본은행 등의 경관을 꾸미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착취를 위해 군인들이 주둔하게 된다(황영산, 2015). 이 시기 양림동 일대는 양림산을 근거지로 한 선교사들

의 공간, 사직산을 근거지로 한 양반들의 공간, 음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공간으로 나뉜다. 이러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들은 광복 전까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경관을 만들어갔다. 1910년 후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국인들이 3.1만세운동을 펼친다.⁸⁾ 이후 수피아학교, 양림교회 등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가연, 2019). 현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어린이 놀이터에는 당시 3.1운동을 최초 모의했던 장소(남구혁 선생의 가옥터)를 기념하고 있다. 다음은 양림동 3.1운동의 발원지⁹⁾와 수피아학교의 근대식 건물이다.

1920년대 일제는 양반들의 공간인 음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사직단이 있던 사직산과 향교가 있던 성거산을 철저히 파괴한다. 먼저 사직산은 1924년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공원이 조성된다. 성거산은 1914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1917년에는 신사를 만든다. 신사 주변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신사 주변과 내부를 공원처럼 이용하도록 하였다(손유림 · 김진아, 2019). 일제는 그동안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를 만들었던 광주천에 다리를 놓고 사직산과 양림산 사이에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처럼 1910년대 조선인들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공간에 머물렀으며 일제와 접촉이 잦았던 소상공인은 음성주변에 있었다. 또한, 농업 기반의 양반지주들은 사직산을 근거지로 거주하고 있었



그림 8. 1900년 초 수피아여교 모습(좌)과 광주의 3.1운동 발원지의 2019년 모습(우)

출처 :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좌); 2019년 4월 저자 촬영(우).

다. 이후 이들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냈다. 현재 양림동 지역에 근대의 문화유산이 많은 이유는 당시 조선인, 선교사, 일본인들이 상호교차하면서 한 공간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3. 현대: 복합 공간 -미국인, 시민, 관광객

광복 이후 광주도심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충장로와 금남로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조정규, 2002). 자본가들은 전남도청 주변의 황금동, 충장동 근처로 모였다. 일본인들이 물려간 곳은 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한국인을 착취하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던 양림산 근처에 모였고 미국에서는 이곳에 미문화원을 만들었다. 당시 미문화원은 국무성소속으로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송하인·김준성, 2013). 1990년대 말까지 미문화원은 양림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관련 미국인들과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반미감정이 심화되면서 이곳은 항상 최류탄 가스라 전경들이 지키는 장소가 되었다(이종인, 2012; 오승용, 2014). 1990년대 후반 미문화원은 철거되었다(박선홍, 1994).

196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한다. 특히 산업근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전남은 일제 강점기부터 있던 빈약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광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비록 환경이 열악하지만 거주 비용이 싼 학동 등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한정훈, 2017). 학동지역과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양림동이다. 광주시는 1960년대 초부터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양림동에는 1976년에 택지가 조성되는데, 주택단지 내 도로, 근린공원, 상가 등의 공용 편익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로 주거밀집지역으로 성장한다(김경환, 2011). 이 지역에 유입된 인구는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저소득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를 믿고 다양한 유흥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1963년 광주공원 부지 안에 도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하고, 1965년에는 광주공원 입구 오른쪽에 구동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으며, 1970년에는 인근에 위치한 사직공

원 내에 동물원과 야외수영장이 개장되면서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일대는 시민들을 위한 여가와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손유림·김진아, 2019). 이로 인해 양림산 근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직산, 성거산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공간이 광주공원의 포장마차 거리와 사직공원 근처의 통기타 카페거리이다. 1986년에는 양림동에 광주 최초의 전문녹음실이 생기고 광주음악의 사랑방이 된다(유영화, 2016).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황금동이나 시내의 유흥장소를 찾지만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조건이 여의치 않던 사람들은 광주공원의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통기타 카페에서 맥주 한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광주광역시는 상무지구, 수완지구, 선운지구 등 수많은 택지개발 지역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양림동에 모여 있던 인구들은 새로운 택지지구로 이동하였다. 양림동은 빠져나가는 인구로 인해 공간의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심리적, 물리적 쇠퇴의 가속화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물리적 재생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정성문·강신겸, 2015). 양림동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많아지고 카페, 빵집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10(좌)은 네이버지도 검색창에서 '양림동 핫플레이스(hot place)'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좁은 공간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카페, 빵집 등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양림동은 외부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관광객들은 양림동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걸음걸이가 펑귄같다고 해서 펑귄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근대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관과 여러 가지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현대의 공간은 조밀한 네트워크 및 통로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 지역을 규정지을 수 없고 그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성되거나 소멸된다. 광복 이후 양림동 공간은 미문화원과 기독교문화, 도시화로 인한 여가의 공간, 그리고 현재는 추모의 공간, 문화재생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림 9. 현대 양림동의 공간변화 구조도

* 네이비지도 재구성.



그림 10. 양림동 핫플레이스(hot place)의 입지(좌)와 거리 안내판(우)



* 네이비지도에서 검색 표시(좌); 2019년 10월 저자 촬영(우).

III. 양림동 근대역사마을의 발전 방안

1.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를 복원시키기

현재 양림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근대의 역사적 배경과 경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있다. 근

대에 사직산을 중심으로 살았던 양반유생들은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들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심한 타격을 받게되었다. 그들은 오랜 시기 사직산을 중심으로 종교에 배향하고 조선왕조를 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기독교와 관련된 경관이 생기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양반들이 지키고 보호해주어



그림 11. 양림동 관광투어 팸플릿(좌)과 유진벨 기념관(우)

출처 : 2019년 4월 저자 촬영(좌); 2019년 10월 저자 촬영(우).

야 할 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로 인해 양반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또한 광주읍성 주위에 모여 살았던 양반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광주읍성 주위에는 일본인들의 경관이 빠르게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다양한 조선인들이 느꼈을 감정,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등은 소외되고 현재는 카페, 빵집 등 사유화된 다양한 소비경관들이 양림동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간의 사유화, 소비화와 상업화, 무장소성의 창출 등으로 공간의 축소 내지 소멸은 사용자의 배제와 차별, 고립의 문제와 연결된다(김미영, 2017). 양림동 공간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 공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들어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권력관계가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소비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양림동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 그렇다고 자본화되어가는 소비공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늘날 현대 도시공간이 과거에 비하여 이미지 중심으로 스펙터클화 되고 소비공간화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다(김미영, 2017). 따라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카페(cafe), 바(bar), 레스토랑(restaurant) 등 상업공간이 광주시민의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어 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동시

에 그동안 우리의 인식에서 소외된 공간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환원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역사지리학의 연구(이준선 등, 2011)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펙터클 장(場)에서의 새로운 자극으로 사람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도시문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공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미영, 2017).

2. 광주의 역사지리를 통한 장소감 획득

광주광역시시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풍부한 수량, 넓은 토지, 따뜻한 햇빛으로 일찍이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이런 이유로 신창동 유적지, 월계동 장고분, 동림동 유적지 등의 선사시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광주공원 근처에는 성거사지 석탑이 남아 있어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서창, 동창 등을 두어 이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한양까지 운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양림동 또한 그러한 보물창고 중의 하나이다. 가까운 곳에 무등산, 광주천이 존재하여 광주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것처럼 지

리적 관점에서 광주의 역사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양림동 지역처럼 각 시대별 사건이 한 공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양림동은 조선시대에는 양림산과 사직산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계층들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서로의 공간은 철저히 나누어졌다. 근대에는 선교사,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현대에는 광주인근의 시골출신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시대에 맞는 경관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러한 경관들의 연결짓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장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 지역이 어떠한 공간이고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경관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양림동이라는 공간이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의 성거사지 석탑, 조선시대의 향교와 사직단, 근대의 양파정, 최승효와 이장우가옥 등 현재 남아있는 경관을 재정비하고 동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역사적 공간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림산과 사직산을 구분하고 양림산이 어떤 공간이었으며 사직산이 조선시대 양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교사, 조선인, 일본인이 함께 공존하던 시기에 양림동 일대를 구분 짓게 하고 그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인식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에 인구유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자본가들과 서민들의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화공간을 구분 짓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일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공간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을 체험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이 공간을 새롭게 살펴보는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인식(인물과 경관중심)보다는 경관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오히려 이용자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지역지리교재 개발

지역의 역사는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현재의 거주민들이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한다. 각 지역의 역사가 튼튼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가 건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지역사 바로 알기는 학교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의 사회과라는 과목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광주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광주의 역사지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재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사용되는 ‘광주의 생활’ 뿐이다. ‘광주의 생활’은 국정교과서의 주요한 내용을 광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학습하는 보조교과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학생들이 광주의 특정한 지역, 장소,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광주광역시의 여러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인물, 장소, 사건을 중심으로 광주의 다양한 공간을 제시한 책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책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지리교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 서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한 장소, 한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수준이다(송하인, 2020). 학습자인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역의 장소, 사건을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 학습을 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전략을 사용하여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광주의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초등학생용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교재는 대부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김영섭 등, 2008; 문재경 등, 2017)이다. 한 가지 사건과 관련된 지역학습교재는 자칫 지역 정체성을 단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양림동은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하지만 관광산업만큼이나 교육적 관점에서 양림동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에서 지역학습의 목적은 학생들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지역의 고유성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구성요소들 간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지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간에 걸친 사회적 과정과 역사적

실재들을 아우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김다원, 2018).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지역학습의 출발은 학생들이 지역 지리교재를 친숙하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공간은 인간에게 결속감을 주는 뿌리 내림의 맥락이므로, 공간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 양식과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계를 맺는지 그 방식을 주요하게 다룬다(윤옥경, 2019). 이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익숙하여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친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다. 따라서 광주에 근무하는 교사는 광주의 다양한 공간을 찾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간을 재구성하여 교재화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이 도시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근래에 광주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양림동 지역을 사례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양림동 지역은 근대라는 한 시기, 선교사들의 노력이라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양림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이데올로기와 상민들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으며 근대시대에는 선교사, 일본인, 자본가, 서민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치열하게 상호작용을 하였던 공간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인, 시민, 관광객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양림동 지역의 공간은 조밀한 네트워크 및 통로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 공간을 규정지을 수 없고 그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성소멸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양림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라진 역사적 경관을 되살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둘째,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역사적 경관을 몇 가지 주제로 정돈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림동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역지리학습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림동 공간이 갖는 다양한 역사적 특성들 중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여 이전 시대의 특성들 및 요소들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살펴보기 못한 점이다. 둘째, 각각의 시기에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경관을 맥락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이로 인해 각 시대별 나타나는 경관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셋째,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특성의 도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역사성과 실제성을 염두에 두고 양림동 지역의 공간이 갖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공간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註

- 1) 정경운(2016)은 일제강점기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장터는 조선인들의 일상문화적 공간이자 동시에 정치적 담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 2) 지방의 사직단은 적어도 태종 6년(1406)이후에 전국의 부주군현(府州郡縣)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도성의 사직단과 구조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김미영, 2006:41).
- 3) 종교경관은 하늘지향성, 시가지지향성, 모음지향성, 구릉지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는 흔히 언덕이나 동산이라고 일컫는 구릉과 산록의 경사반환점 등이다(최진성, 2007). 양림산, 사직산, 성거산은 읍성 근처의 작은 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4) 개항과 함께 목포로 들어온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목포의 구릉에 선교부를 위치시킨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목포시가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조선인 거주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릉'을 좋은 위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진성, 2007:9).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

- 교부의 위치가 지정된다.
- 5) 광주읍성의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성과 성문 철거를 시작할 때를 1908년이라 보는 의견은 대부분 일치한다(황영산, 2015:29).
 - 6) 조선시대부터 광주천과 가까운 양림동 지역은 많은 저소득층들이 거주하였다. 3.1운동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작은 시장에서 전개될 예정이었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광주천을 정비하고 도시공간을 정화할 목적으로 이 지역의 저소득층들을 집단 거주 지역으로 철거한다(한정훈, 2017). 이때 철거 지역이 양림동과 가장 가까운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이 된다.
 - 7) 이곳은 현재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위치에 했다. 연구자가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아파트에서 설치미술을 해놓은 줄 알았다. 이처럼 양림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장소는 파편화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보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8) 허영훈(2016)은 경기도 25개 지역의 3학년 지역화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화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의 구성체제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주제별 관련 사례들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그 고장만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참고문헌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19, 「광주의 생활 4-1」, 광주광역시교육청.

국토지리정보원 2015, 「한국지리지 광주광역시, 진한엠앤비.

김경환 2011,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구도심 재생의 관점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다원 2018, 「초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학습 구성방식과 내용구성 변화분석」 한국지리학회지, 7(3), 261-274.

김미영 2006, 「지방사직단에 대한 연구: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20, 5-44.

김미영 2017,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3), 455-463.

김병수·오상목·오세규 2008, 「역사환경체험을 고려한 보행 네트워크 구성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역사유

적을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177-187.

김영섭·박장규·박준·박상철·정남석 2008, 「5.18 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 5.18기념재단.

김종철 2008, 「유진벨 선교사의 목포, 광주 선교활동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형민·정봉현 2018, 「도시관광지에 대한 교통 접근성 평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5), 193-206.

나선하 2006, 「조선후기 나주 향리(鄕吏)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은정 2014,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재경·배성호·이은지·조성래·황은희 2017, 「5.18 민주화운동(초등 5, 6학년)」, 5.18 기념재단.

박선홍 1994, 「광주 1백년」, 광주: 금호문화.

박의준 2002, 「우리나라 남부지역 읍성지의 지형경관 분석 -광주 읍성지를 사례로-」 지리학회지, 36(4), 299-311.

박정은·이효원 2016, 「광주 양림동 문화마을의 관광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2), 1116-1117.

박종호·정찬영·김영훈·신용주·이상선·성대철·박강철 2008, 「광주 양림동 선교지역 근대건축 특징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논문지, 1(1), 179-195.

손유림·김진아 2019, 「광장의 공공문화: 광주공원과 5·18민주광장의 형성과 역할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79, 91-115.

송언근 2010, 「양동 마을 입지 탐구에 토대한 지리 탐구 과정의 구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37-58.

송하인 2020, 「초등학교 지역지리학습교재 개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어등산의 한말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9(1), 1-22.

송하인·김준성 2013, 「전남사회과연구회의 변천사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0(4), 47-66.

송현숙 2011, 「호남지방 미국 남장로교의 확산: 1892-194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가연 2019, 「호남지역 기독교 여학교의 3.1운동: 수피아학교, 기전여학교, 정명여학교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4, 83-109.

이정훈 2008, 「지역활성화를 통해 본 도시공간 의미의 재구성: 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인 2012,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인물의 미국에 대한 인식: 윤한봉과 윤상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36(2), 91-147.
- 이준선·홍금수·이전·김기혁·김덕현·오상학·양보경·정치영·전종한·박해욱·이기봉,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이재희·안정근, 2013, “조선시대 읍성의 도시공간구조 특성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1), 1-18.
- 이화식, 2016, “르페브르 공간론의 교육적 적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32(2), 269-295.
- 양해근, 2004, “광주천의 건천화와 수문환경문제,”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10(3), 568-578.
- 양혜진·신주철, 2015, “노량진 공간의 사회적 특성 연구: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5월 9일), 168-180.
- 오승용, 2014, “종교코드를 통해 읽은 5.18항쟁: 천주교를 중심으로,” 신학전망, 185, 7-47.
- 유승희·권창희, 2017, “고령화에 따른 공간변화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 11-22.
- 유영화, 2016, “도시의 음악경관연구: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 2019, “초등 예비교사들이 바라본 학교공간과 지리 교육,” 한국지리학회지, 8(3), 337-348.
- 장세영, 2015,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운, 2016, “일제강점기 식민도시화 정책과 오일장 변화 과정: 광주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17, 153-180.
- 정성문·강신겸, 2015, “커뮤니티 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조분석: 양림동 도시재생과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7(4), 215-239.
-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도시관광지 주민의 지역애착도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21-38.
- 조정규, 2002,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규, 2013, “일제강점기 광주읍성 내의 경관변화,” 남도문화연구, 24, 237-262.
- 조철기, 2012, “내러티브 텍스트를 활용한 지역학습 전략: 낙동강 유역을 사례로,” 중등교육연구, 60(2), 313-341.
- 천득염, 2009, “광주 양림동의 근대도시공간적 의미,” 호남문화연구, 44, 1-32.
-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2), 149-172.
- 최진성, 2003, “종교경관의 지리적 해석: 천주교경관과 선교 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성, 2007, “종교의 장소성과 선교전략: 일제강점기 목포를 사례,” 문화역사지리, 19(1), 1-18.
- 최진성, 2019, “근대 이전 우리 땅의 종교 지명: 1982년 지방 지도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40(1), 53-82.
- 한예원, 2014, “광주 향교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광주 읍성”의 교육과 문화,” 한국사기문화연구, 34, 419-448.
- 한정훈, 2017, “광주 주변부 공간의 변화와 이주민의 장소성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1(1), 51-84.
- 허영훈, 2016,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 구성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5-78.
- 홍옥범, 2015,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산, 2015,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공간의 재현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산·전경숙, 2015, “광주읍성 공간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재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1-11.
-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 <http://www.gjarchive.kr>
- 네이버블로그, “사람 사는 광주,” <https://blog.naver.com/cyphoto/220939821675>
-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교신 : 홍기대,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kdhong@gnue.ac.kr)
- Correspondence : Kidae Hong, 61204,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kdhong@gnue.ac.kr)
- 투고접수일: 2020년 3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17일

